



우석대, 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두각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제2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여자대학부 5인조 단체전 종합우승 및 개인전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15~28일까지 9일간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여자대학부 5인조 단체전에 출전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A팀(김가현 4년·최여진 4년·이승연 4년·박서영 2년·손태연 1년·임유리 1년)은 광주대외의 결승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또한 5인조 단체전에 출전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B팀(조은진 3년·최금주 3년·최규리 3년·공채영 1년·이재은 1년·문희원 1년)도 종합 3위 올랐다.

이와 함께 겨루기 개인전에 출전한 이승연(태권도학과 4년·75kg급)과 최여진(태권도학과 4년·47kg급) 학생이 각각 금메달을, 최규리(태권도학과 3년·49kg급)와 정유나(태권도학과 2년·47kg급) 학생도 동메달 2개를 보태며 개인전 종합 준우승을 이끌었다. /정은성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지구대장 황인용)는 관내 외부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 간담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최근 피해 유형을 공유하고, 사안에 차단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황인용 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책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모래내지구대, 공용버스터미널 보이스피싱 캠페인

모래내 지구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각종 범죄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금융동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다중발집시민 대상으로 18일 가졌다.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은 모래내 지구대는 노인·중장년 대상으로 전화금융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집중 홍보했다.

김태형 전주특진경찰서장은 "경찰서 전기능이 참여해 전화금융 사기 근절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주민센터, 경로당, 병원 등 다중 운집장소 방문 및 주요 목지점에 플래카드 게시, 전단지 배부 및 경찰합력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건협, 녹원회와 함께 걷기·나눔 1000만원 기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사)미스코리아 녹원회(이하 녹원회)와 함께 걷어 나눔으로 '건강과 기부'를 동시에 실천하는 1석 2조의 웰린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걷을 수 1억 보를 달성할 경우 미스코리아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걸어봄! 기부해봄! 건강해져봄! 웰린이'가 실시된다.

웰린지는 미스코리아 수상자로 구성된 녹원회 회원과 건협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며,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30일간이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0분을 빠르게 걷는 것이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직원 개인의 건강은 증진시키고 사회에는 기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번 웰린지를 통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건협은 지난 3월 20일 녹원회와 건강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태 기자

“소외된 이웃에 먼저 다가가는 온정”

남원시 도동동 지사협,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동장 김윤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역사회 맞춤형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동동의 특화사업은 △도동동 사랑 나눔 1인 1계좌 갖기 △사랑 듬뿍 찬찬찬(饅飩讚) △긴급 지원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사랑나눔 1인 1계좌 갖기는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기기부자 120명을 발굴해 매월115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해 도동동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랑 듬뿍 찬찬찬(饅飩讚) 지원사업은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에서 지정기탁금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천만원을 편성해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소외계층 17가구를 선정, 협의체 위원들이 매월 2회 가정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밑반찬 나눔을 하고 있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생긴 주민들이 생계비(50만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초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2가구를 발굴해 긴급 지원했다.

한편 김윤자 도동동장은 "민간과 공공이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온정 넘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가톨릭대(대표 이두성)를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들은 망설임 없이 전북지부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아 기자

이두성 대표는 전북지부 전주지역위원회(회장 윤병목)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정기적 후원에도 동참해주신 이두성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 사회의 재방방지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분

남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

남원시는 18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장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장터금을 지원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 가입자(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50명을 대상으로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분장유지 및 지급요건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안내했다.

으로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이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평생활용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공단 장형석 과장을 초청해 효율적인 소비와 저축, 연금자산 관리방법, 기초·국민·주책연금 활용법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건전한 소비생활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가입자들의 중도 포기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자립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



완산소방서, 현장 대응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율적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진압용 이동식 침수조 훈련을 소방서 주차장에서 18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국내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침수조를 이용한 사용법 교육 및 화재 진압 훈련 등 기본 소양을 기르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각 센터 화재 진압대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동식 침수조 이론교육과 전기차 화재 진압 가상 훈련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특징 및 화재 특성 이론 △이동식 침수조 교육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 △차량화재 대응절차(SOP) △전기차 구동방식에 따른 대응방법 △전기차 화재 상황 가정 시나리오 훈련 등이다. /이경아 기자



김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제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유공위원 표창을 시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을 강사로 초청해 김제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원으로서의 의무와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태 기자



전북대병원, 아동학대 예방교육·간담회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병원 교수 연구동 지하 1층 GSK홀에서 전라북도 광역 새싹자립이병원 제2차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라북도 김정 과장, 아동권리보장원 조혜선 과장, 전라북도 새싹자립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정태오 위원장 등 총 35명의 지역 새싹자립이병원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에서는 정태오 전라북도 새싹자립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남원시청 오현진 주무관이 새싹자립이병원 협력체계를 공유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시간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새싹자립이병원 진료과 특이사항을 공유하며 전라북도 새싹자립이병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새싹자립이병원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오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학대피해아동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새싹자립이병원에 선정, 고난도 아동학대를 치료, 자문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경아 기자



전주비전대, 산학연 연계 개인진로상담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IINC 3.0 사업단은 최근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 홍보 및 개인진로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는 지난해 IINC 3.0 사업에 선정돼 2023년 2차년도 사업을 진행, 공유와 협업 기반의 자가확장형 선순환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산학수요기반 혁신 주도형 인재양성,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고품질 산학협력 지원,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과 공유·협업, 산학협력 성과관리 고도화를 4대 전략으로 정했다.

그 중 산학수요기반 혁신 주도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기공학과의 8개 학과에서 Power System 융복합 인력양성 과정을 포함한 11개의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전기공학과 김승준 학생은 "아직은 학기 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IINC 3.0 사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생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인당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시상

호원대학교 인당도서관은 18일 사회과학(삶, 직업, 시대의 변화와 흐름 등을 읽고 란 주제로 독후감 공모전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22회째다. 응모자격은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학부(과)생들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이 중 대상에는 유아교육과 강은혜 학생(4년)이 여섯 선생님의 봄이, 배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 '매일 놀이에도 관할아'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직업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기술한 감상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많은 학생이 독후감에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회학적 관점을 적절하게 반영한 점을 확인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대상에 선정된 강은혜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나의 진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